

Econ Snapshot

한국 4Q GDP: 선방했지만 잃어버린 소비

한국 4Q GDP 전기비 1.1% 성장, 2020년 경제성장률 -1.0% 기록

한국 4분기 GDP가 전기비 1.1%(전년비 -1.4%) 성장하면서 2020년 연간 성장률은 당사 예상치와 동일한 -1.0%로 집계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각각 -1.1%)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4분기 GDP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순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기비 기준으로 내수부문의 기여도가 -0.3%p를 기록한 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1.3%p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지출항목별 GDP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 타격이 예상보다 컸다. 코로나 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며 민간소비 기여도는 -0.8%p를 기록했다. 재화와 서비스 지출이 모두 감소했고, 1~2차 확산 당시보다 충격이 컸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기계류 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일부 감소하며 기여도 상 소폭 감소(-0.2%p)했다. 반면 건설투자 기여도는 플러스 전환(+0.9%p)됐다. 지난 3분기에 장마 등 계절적 영향과 SOC 예산 집행 축소로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건축과 토목 부문이 모두 증가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소비와 투자를 아울러 +0.4%p를 기록했다. 대외부문은 수입 개선폭에 비해 수출 회복 속도가 빨라 순수출이 호조를 보였다(+1.3%p).

국내 경제는 2021년 2.9% 성장 전망 유지. 상고하저 흐름 예상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로 연평균 2.9% 성장을 예상한다. OECD와 한국 통계청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지난 해 상반기 이후 상승 추세다. 분기별로는 기저 효과가 반영돼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공산이 크다. 설비투자와 수출 주도의 성장이 유효하다.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자본재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12월 ISM 제조업지수가 60.7P로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호조가 이어지며 수출 개선을 지지한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를 기대한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가 온전한 회복 경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성장 주도권 바톤 터치가 필요하다. 지난 2020년 성장률이 -1.0% 하락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영향이 주요했다. 정부 기여도가 +1.0%p, 민간 기여도가 -2.0%p를 기록했다. 올해도 확장 재정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지난 해만큼 정부 지출이 크게 단행될 개연성은 낮고,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것이다.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민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고용 부진이 심각한 업종을 살펴보면, 여가서비스/숙박 및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종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다. 국내 서비스 매출 물량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못 미친다. 특히 4분기에 크게 악화된 민간소비가 올해 중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초점이 경기 침체 방어에서 성장 동력 확보로 옮겨가야 할 때다.

Macro Comment

Economics



Economist/원자재 전규연
02-3771-8196
kychu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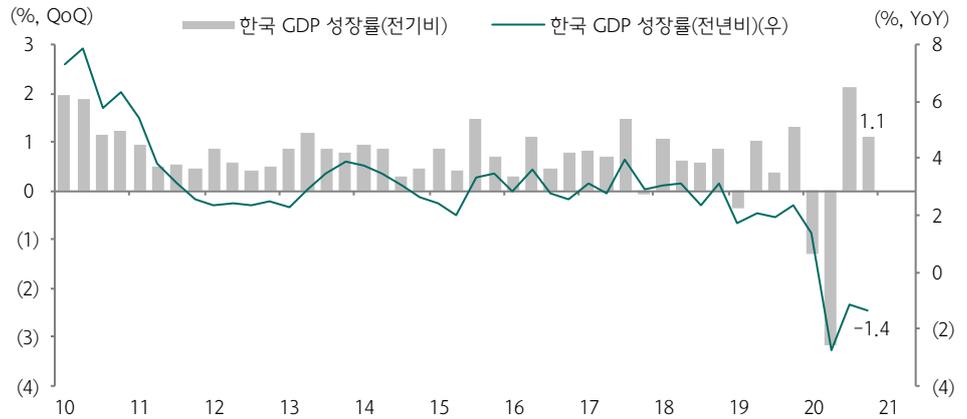
Economist/자산배분 나중혁
02-3771-3638
jhna73@hanafn.com

RA 이규희
02-3771-7513
gyuhee.lee@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한국 4Q GDP 전기비 1.1% 성장. 2020년 연간 -1.0% 기록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표 1. 한국 GDP 세부항목 추이

		20.1Q	20.2Q	20.3Q	20.4Q	2020년
국내총생산	전년비	1.4	-2.7	-1.1	-1.4	-1.0
	전분기비	-1.3	-3.2	2.1	1.1	--
최종소비지출	민간소비	-6.5	1.5	0.0	-1.7	-5.0
	정부소비	1.4	1.1	0.2	-0.4	5.0
총 고정자산투자	건설투자	0.5	-1.5	-7.3	6.5	-0.1
	설비투자	0.2	-0.5	8.1	-2.1	6.8
	지적재산생산물투자	0.8	2.4	0.1	1.0	3.7
	재고증감	0.6	0.1	-1.0	-0.3	-0.7
수출		-1.4	-16.1	16.0	5.2	-2.5
수입		-3.6	-6.7	5.6	2.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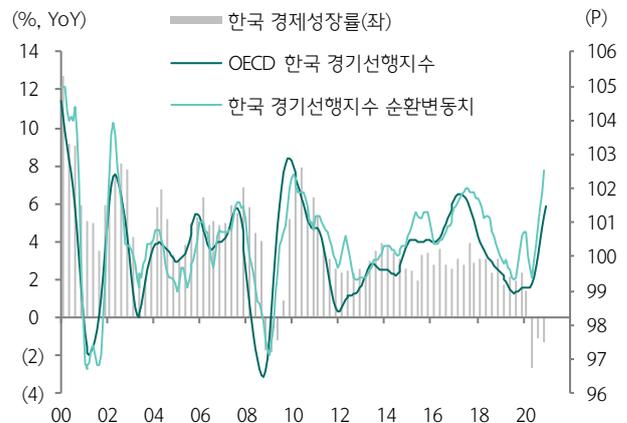
주: 1) 항목별 성장률은 전분기비 기준, 단 2020년 연간은 전년비 기준, 2)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자료: Thomson Reuters,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2. 국내 지출별 GDP 전기비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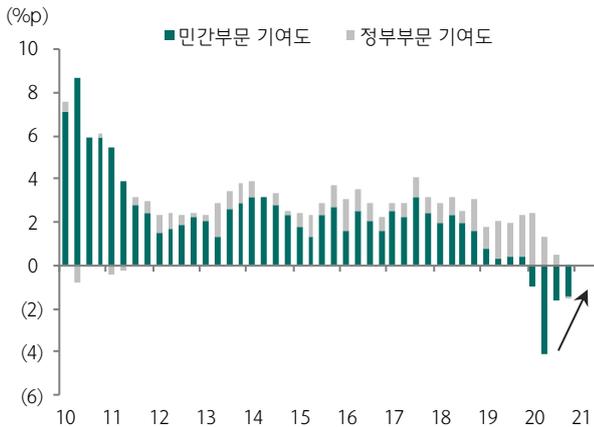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그림 3.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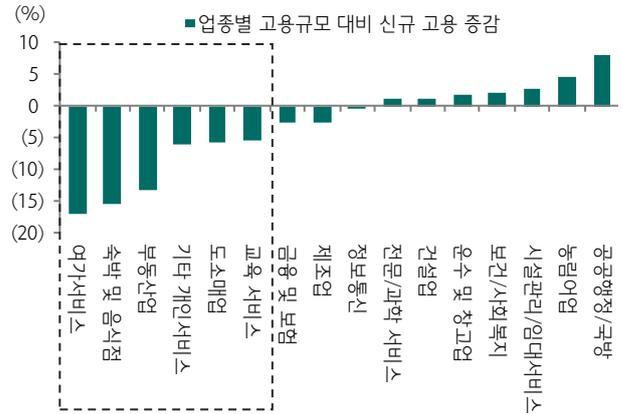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그림 4. 2021년은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바톤 터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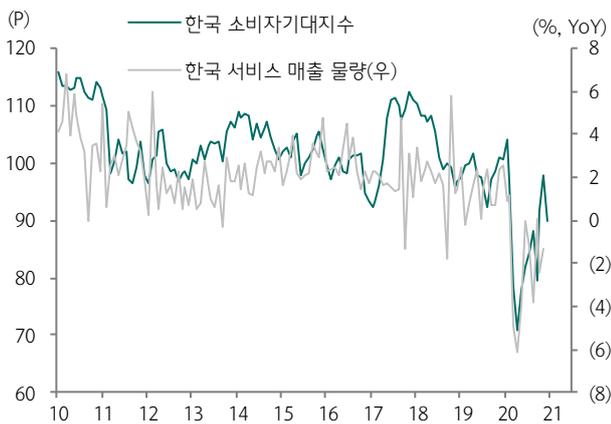
자료: ECOS, 하나금융투자

그림 5.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 업종들의 고용 감소



주: 2020년 12월 고용 기준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6. 국내 서비스업 수요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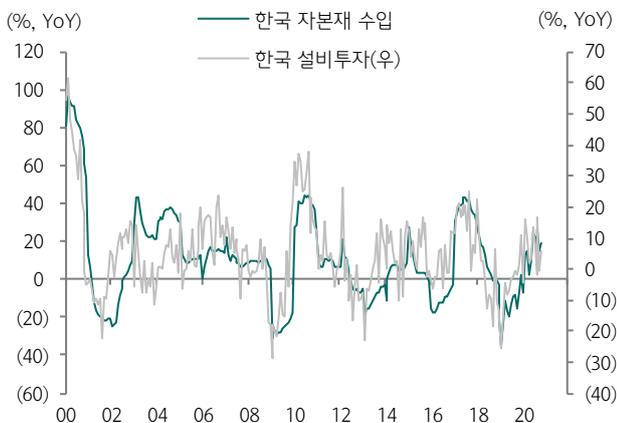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그림 7. 한국 공종별 건설기성액 추이



주: 불변 건설기성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8. 자본재수입 증가하며 설비투자 호조 이어질 전망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9. 글로벌 제조업 회복되며 국내 수출 개선세 지속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